



2021

대구교육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대구교육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서

CONTENTS

1. 대구교대가 함께하고 싶은 학생들	01
2. 2022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02
3.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04
• 평가 주안점 및 주요 특징	04
• 평가지표	04
4.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09
<미리 만들어보는 학교생활기록부>	10
<학생부종합전형 자가 진단 체크 리스트>	15
5. 학생부종합전형 묻고 답하기	16
6. D.new(재학생)'s story	18
• 대입준비 이야기	18
• 면접 이야기	22
• 2021학번 새내기기의 편지	25
• 농어촌 교육실습 이야기	26
• 이모저모 이야기	29
7. 대구교대의 입학정보 제공 채널	35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1. 대구교대가 함께하고 싶은 학생들

“ 참 된 스승의 길을 간다 ”

이는 1950년 국립 대구사범학교로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구교육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시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는 이러한 교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함께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학생

1	자기주도성과 유연한 학습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학생
2	초등교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수능력과 리더십을 겸비한 학생
3	초등교직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와 사명감을 지닌 학생
4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협업능력을 갖춘 학생

2. 2022학년도 입학전형 안내

•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참스승	모집 인원	정원 내	70명	65명
	지역인재			120명	127명
	국가보훈			8명	8명(변경 없음)
	다문화 등			2명	0명
	기초 수급자 등	모집 인원	정원 외	17명	14명
	농어촌학생			6명	6명(변경 없음)
	장애인 등 대상자			15명	15명(변경 없음)
	서해5도			14명	14명(변경 없음)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일반전형	모집 인원	167명(정원 내)		169명(정원 내)
		전형 방법	• 1단계 : 수능성적(2배수) • 2단계 : 수능성적+학생부 성적+면접성적		• 1단계 : 수능성적(2배수) • 2단계 : 수능성적+면접성적
		가산점	• 수학 가형 및 과탐 영역 : 취득 표준점수의 각 5% 가산		• 수학 및 과탐 영역 : 가산점 없음
		수능 성적 산출	• 수능성적 : 본인 취득 표준점수 반영(국어, 수학, 탐구 영역)		• 수능성적 : (본인 취득 표준 점수/ 전국최고 표준점수) X 영역별 수능 반영점수(국어, 수학, 탐구 영역)

• 모집시기별 전형방법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	전형단계	선발인원	서류평가	면접평가	총점
	1단계	3배수	100%(1,000점)	-	100%(1,000점)
	2단계	1배수	70%(700점)	30%(300점)	100%(1,000점)
정시 모집 (수능위주)	전형단계	선발인원	수능성적	면접평가	총점
	1단계	2배수	100%(1,000점)	-	100%(1,000점)
	2단계	1배수	97.1%(1,000점)	2.9%(100점)	100%(1,100점)

수능 성적 산출방법

【반영 비율 및 배점】

구분	반영영역 (과목 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사탐, 과탐)	총점
비율(%)		30	30	20	20	100
배점	4개 영역 (5개 과목)	300	300	200	200	1,000
활용지표		표준점수	표준점수	환산점수	표준점수	-

【수능성적 영역별 산출방법】

① 국어·수학 영역 : (본인이 취득한 표준점수/전국 최고 표준점수) × 0.3(반영비율) × 1,000점

② 탐구영역(2개 과목 합산)

[(본인이 취득한 1과목 표준점수/전국 최고 해당과목 표준점수) × 0.1(반영비율) × 1,000점] + [(본인이 취득한 1과목 표준점수/전국 최고 해당과목 표준점수) × 0.1(반영비율) × 1,000점]

※ 영어 영역 등급별 환산점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환산점수	200	195	190	185	180	175	170	165	0

3.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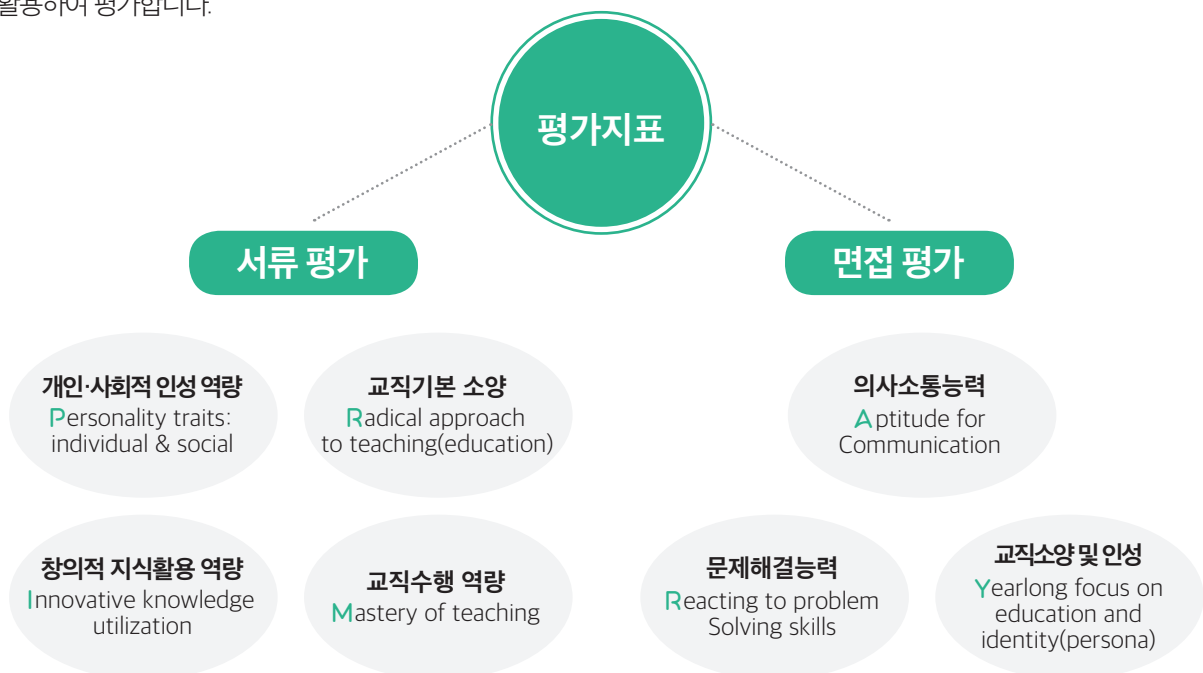
대구교육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이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참된 스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학생의 역량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학생이 경험한 학습 활동(교과, 비교과)과 초등교직 수행과의 연관성 여부를 검토하여 대학 진학 후에도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 평가 주안점 및 주요 특징

- 학습활동(교과 활동, 비교과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 학교별로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이 선택한 교과목의 특성과 학습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의 성장 정도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교육대학 및 2015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참여 노력과 과정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없습니다.
- 학생은 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며 면접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후보번호를 부여합니다.
- 다수의 전문 평가위원이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협의,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지표(PRIMARY)

예비 초등교사(prospective PRIMARY teacher)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역량(PRIMARY competency)을 평가하는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 평가영역 - 평가기준 간 합치 관계

평가영역			평가기준
P	서류 평가	개인·사회적 역량 (Personal and Social traits)	‘함께’를 실천하는 인성
R		교직소양 [Recognition to teaching(education)]	초등교직 관심·열정
I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Innovative knowledge utilization)	학습능력, 탐구정신
M		교직수행 역량 (Mastery of teaching)	교수능력, 리더십
A	면접 평가	의사소통능력 (Ability of communication)	이해력, 전달능력
R		문제해결능력 (Reacting to problem solving skills)	I + M 확인
Y		교직소양 및 인성 [Yearlong focus on education and identity(persona)]	P + R 확인

• 평가 영역 -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간 합치 관계

평가영역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개인·사회적 역량 (Personal and Social traits)	• 출결상황 • 수상경력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동아리) •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봉사활동실적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직소양 [Recognition to teaching(education)]	• 수상경력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동아리/진로) •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봉사활동실적 • 독서활동상황(교육관련)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 (Innovative knowledge utilization)	• 수상경력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동아리) • 교과학습발달상황(학업성취도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독서활동상황(다양성)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교직수행 역량 (Mastery of teaching)	• 수상경력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동아리/진로) •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봉사활동실적 • 독서활동상황(교육관련)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 세부 평가요소 간 합치 관계

항목	세부 평가요소	
인적·학적사항	전출·입 사항 불이익 없음_ 전출·입 이후의 발전 내용 긍정적 검토	
출결상황	성실성 검토_ 미인정(무단) 결석 등의 경우 다른 항목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	
수상경력	교내 활동 참여 노력과 성취수준, 학생의 특성 등을 검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생 개인의 경험 검토)	학업 관련 활동 및 그 외 활동에서 드러난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	
	자율활동	주어진 환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학급 또는 동아리 등을 위해 학생이 노력한 내용을 검토
	동아리활동	지적 탐구 노력, 문제해결능력, 교직수행 능력 등 학생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검토
	진로활동	학생의 진로탐색 과정과 관심분야에 기울인 노력을 검토
교과학습 발달상황	봉사활동실적	학생이 경험 속에서 보인 성장의 정도를 검토 ※ 봉사시간에 대한 평가 아님
	• 학생 자신의 과목 선택과 그 결과(성취수준)에 대한 정성적 검토 •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성취수준을 이수단위,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수강자 수를 고려한 정성적 검토 • 학생의 주도적인 학습 상황, 과제수행(토론, 발표 등) 노력, 수업태도 등을 정성적으로 검토 • 학생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검토 ※ 초등교사는 전 과목을 지도하므로 진로 선택과목 및 전문교과 과목에 대한 선택의 제약 없음. 학생 자신이 주어진 교육과정 내에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드러나는 학업 및 학업 외의 역량을 평가	
독서활동 상황	• 독서활동 속에서 드러나는 관심분야와 지적 호기심을 검토 ※ 독서의 양에 대한 평가 아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생의 특성, 학업태도, 관심분야, 교내활동 참여 노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평가 절차 및 과정_블라인드 평가



서류평가

step1 준비	- 평가위원 전원 연 40시간 이상 공정성·전문성 강화 교육이수 - 평가위원 간 사전 모의 서류평가 실시 및 토의
step2 1차평가	- 학생 1명을 평가위원 2인(전임사정관)이 평가 실시 * (점수 반영) 2인의 평균 점수 반영
step3 2차평가 (조정평가)	1차평가에서 평가위원 간 일정편차 이상 발생 시 평가위원 1인(전임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조정평가 실시 * (점수 반영) 1차 평가위원 2인의 점수 중 조정평가 점수에 근접한 점수와 조정평가위원 1인의 평균 점수 반영
step4 3차평가	- 학생 1명을 평가위원 3인(전임 및 위촉사정관)이 평가 실시 * (점수 반영) 3인의 평균 점수 반영
step5 4차평가 (조정평가)	- 평가위원 간 일정편차 이상 발생 시 평가위원 2인(전임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조정평가 실시 * (점수 반영) 3차 평가위원 3인의 점수와 조정 평가위원 2인의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인의 평균점수 반영
step6 5차평가	- 동일한 지원자에 대한 1~4차 평가내용이 상이한 경우 평가위원 3인(전임사정관)이 해당 학생을 재평가 * (점수 반영) 3인의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반영



면접평가

step1 면접대기실 입실	- 학생은 입실시각까지 면접대기실로 입실 - 학생 개인별로 면접도우미에 의한 출석확인 - 자신의 면접시간 전까지 면접대기실에서 대기 - 면접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면접실 앞으로 이동
step2 면접	- 면접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면접실로 입장 - 학생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 위원이 질문 - 학생 개인당 15분 이내 실시 * (점수 반영) 각 면접위원이 부여한 평가점수의 평균을 반영
step3 면접종료	면접 후 즉시 귀가

면접 준비 tip

대구교육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서류 확인 면접입니다. 학생부를 활용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면접을 통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형식입니다. '문제해결능력'평가는 서류평가 시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과 교직수행 역량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묻고, '교직소양 및 인성' 평가는 서류평가 시 교직소양과 개인·사회적 역량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질문합니다. 먼저 평가영역별로 서류평가에서 검토했던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학업과 학업 외 활동의 진정성, 사고의 깊이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잠재 역량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대구교육대학교의 면접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학교생활 동안 자신이 예비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초등교직의 특성을 인지하고, 그 특성에 부합하는 준비와 실천했던 경험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상 질문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답변 연습을 해 보셔야 합니다. 주어, 목적어 등이 수반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 연습하기 보다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두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생각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면접위원 앞에서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면접위원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오'와 같은 단답형 또는 장황하게 늘어놓는 방식의 답변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넷째,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과도한 동작을 지양하며 감정 조절을 마음에 두고 차분히 답변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면접위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대화, 수업시간, 동아리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간결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의연습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면접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 교사, 부모 등 주변 사람들과의 모의면접 또는 셀프 면접 동영상 촬영의 방식을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면접질문 예시]

평가영역	예시 내용
문제해결 능력	(Case 1) 1학년 때 부터 꾸준히 성적이 좋은 경우 - 교과성적 상위권을 유지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은 무엇입니까? (꼬리 질문) 학습부진아에 대한 이해 정도는 어떠한 편입니까? (꼬리 질문)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무엇이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 과목 수업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해보고 싶습니까? (Case 2) 3년간 동아리활동의 변경이 없는 경우 ○○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꼬리 질문) 동아리에서 학생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주도가 되어 활동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꼬리 질문) 동아리 활동간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경험은 무엇입니까?
교직소양 및 인성	(Case 1) 학생부를 통해 진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초등교사가 되고자 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꼬리 질문) ○○ 활동이 초등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Case 2) 자율활동에서 교직 소양 및 인성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 활동 중 학생 개인이 수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꼬리 질문) 활동간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꼬리 질문) 그 어려움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의사소통 능력	질문 및 상황에 대한 이해력과 논리적인 표현력

* 면접안내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대구교육대학교 입학홈페이지 < 입학안내영상 > 수시 및 정시 면접 안내

4.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학생은 교직에 대한 탐색 과정을 바탕으로 예비 초등 교사로서 학업지도, 생활지도, 인성지도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학업능력 향상 노력, 학업 외 활동의 폭과 사고의 깊이, 공동체 의식 함양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 초등교직 탐색 활동 강화

초등교직 수행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진로와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쫓고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역량을 확장하려는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추상적인 느낌을 보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 학업 능력 향상 및 학업 이외 다양한 경험 축적

초등교사는 학업지도를 해야 합니다. 고교 전 과목의 학업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지적 역량 및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교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평가 대상입니다. 이에 주요 과목뿐 아니라 이외의 과목에서도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초등교사는 생활지도를 해야 합니다. 고교에서 학업 이외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학생의 특성과 학습능력, 탐구 자세, 진로에 대한 관심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평가 자료입니다. 교내의 각종 행사,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 등 고교에서 쌓은 경험은 생활지도를 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 및 자질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공동체 의식 함양 노력

초등교사는 학업지도와 생활지도를 하면서 인성지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고교에서의 모든 학습활동(학업, 학업 외 활동)은 협업, 나눔과 배려, 공감, 책임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가 됩니다. 학습활동을 하면서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함양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합니다.

<미리 만들어보는 학교생활기록부>

• 출결상황

학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 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1														
2														
3														

실천 계획 세우기

■

■

■

• 수상경력

학년 (학기)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 (참가인원)
1	1				
	2				
2	1				
	2				
3	1				
	2				

실천 계획 세우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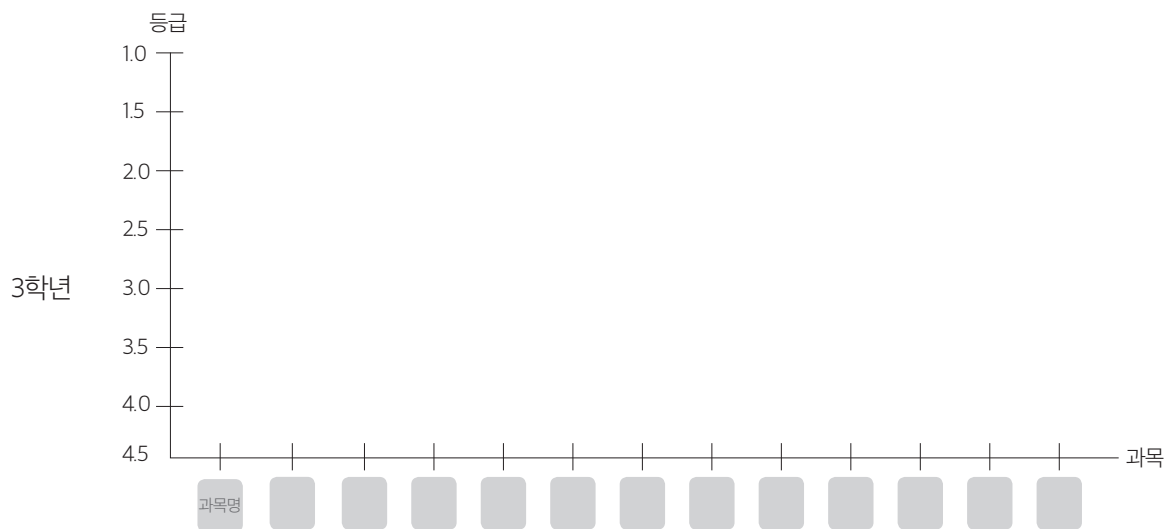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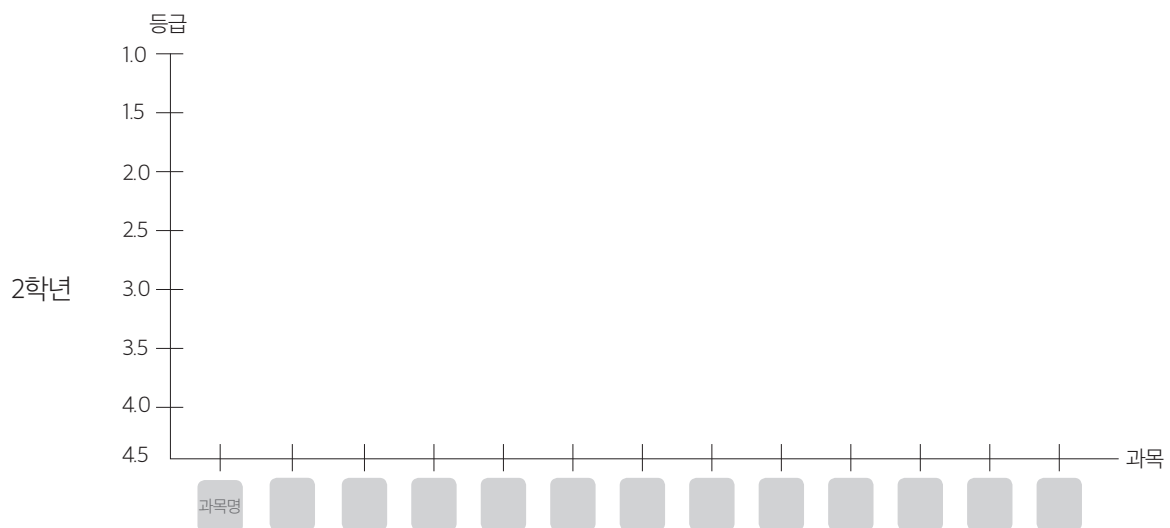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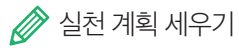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진로활동		
2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진로활동		
3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진로활동		

학년	봉사활동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실천 계획 세우기

자율활동	■ ■
동아리활동	■ ■
진로활동	■ ■
봉사활동실적	■ ■





•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1		
2		
3		

 실천 계획 세우기

■

■

■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	
3	

 실천 계획 세우기

■

■

■

■

〈학생부종합전형 자가 진단 체크 포인트〉

평가 영역	세부 내용
창의적 지식 활용 역량	평가영역 의미
	• 전반적인 교과 성취수준 및 학업 발전 정도 •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자세
	평가포인트
	• 전 학년에 걸쳐 전체 교과의 성적이 우수한가? • 교과 성적이 학년에 따라 향상되고 있는가? • 스스로 알고자 하는 지적호기심과 도전의 태도가 학습활동(교과, 비교과)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전형 준비 tip 또는 대학별 평가 방향 •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단위수, 이수자 수 등을 파악하여 검토 • 학습활동 과정에서 보이는 열의, 과제수행 능력 등 검토 ※ 교과 등급만으로 평가하지 않음
교직 소양	평가영역 의미
	• 초등교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해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과정
	평가포인트
	• 비교과활동 속에서 초등교직과 연계되는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가? • 진로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의 학습활동이 초등교직과 연계됨을 보이는가?
	전형 준비 tip 또는 대학별 평가 방향 • 비교과활동과 초등교직의 연관성 여부를 검토 • 비교과활동분야가 일관성이 높지 않더라도 초등교직 수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지 검토 ※ 비교과활동의 단순 참여 사실여부를 평가하지 않음
교직 수행 역량	평가영역 의미
	• 교수능력 배양을 위한 주도적인 계획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자세 • 타인과 함께 자기계발 문화를 형성하면서 사고와 경험의 폭을 확대하려는 자세
	평가포인트
	• 교학상장을 실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 자신과 타인을 동기부여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고 지속적이며 열정적인가? •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기발전을 위한 도전정신이 있는가?
	전형 준비 tip 또는 대학별 평가 방향 • 학습활동 과정에서 보이는 교수활동, 지도력, 실천의지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개인 사회적 역량	평가영역 의미
	•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보이는 자세 • 타인과 협업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나타나는 자세
	평가포인트
	• 단체활동 참여, 출석 등 학생으로서 의무를 꾸준히 수행하고 있는가? • 학교 내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는가?
	전형 준비 tip 또는 대학별 평가 방향 • 역할의 비중보다는 학생 개인의 협업활동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검토 • 불성실한 생활태도의 경우, 사유 및 이후 개선 노력 등을 파악하여 검토

5. 학생부종합전형 묻고 답하기



Q.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반영 비율은 별도로 설정되어 있나요?

항목별 반영 비율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서류평가 영역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종합평가 방식은 무엇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항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창의적 지식활용 역량을 평가할 때, 교과학습발달 상황 이외에도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내용이 많은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에 유리한가요?

단순히 학교생활기록부의 페이지 수가 많다고 평가에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학생 개인에 대한 활동과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자료가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역적·교육적 환경의 차이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학생의 활동이 빠짐없이 충실히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이 낮아도 잠재력과 열정만 충분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

합격 또는 불합격의 여지를 모두 내포합니다. 교과 학습과 교과 외 학습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평가를 하므로 어느 한 쪽의 우수성만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생활기록부는 각각의 항목별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항목에 대한 우위를 두기 어렵습니다. 모든 항목이 의미 있는 평가요소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항목을 꼽아야 한다면 평가영역과의 연관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직수행 역량을 평가할 때 자율활동과 동아리활동,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담고 있는 정보가 많다 보니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서도 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Q. 수상경력이 많다면 대입지원 시 어느 것을 선택하여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요?

진로와의 연관성을 고민하여 학생 자신의 진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가 큰 수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평가위원은 학생부에 기재된 수상경력을 통해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아리활동,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의 역량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Q. 봉사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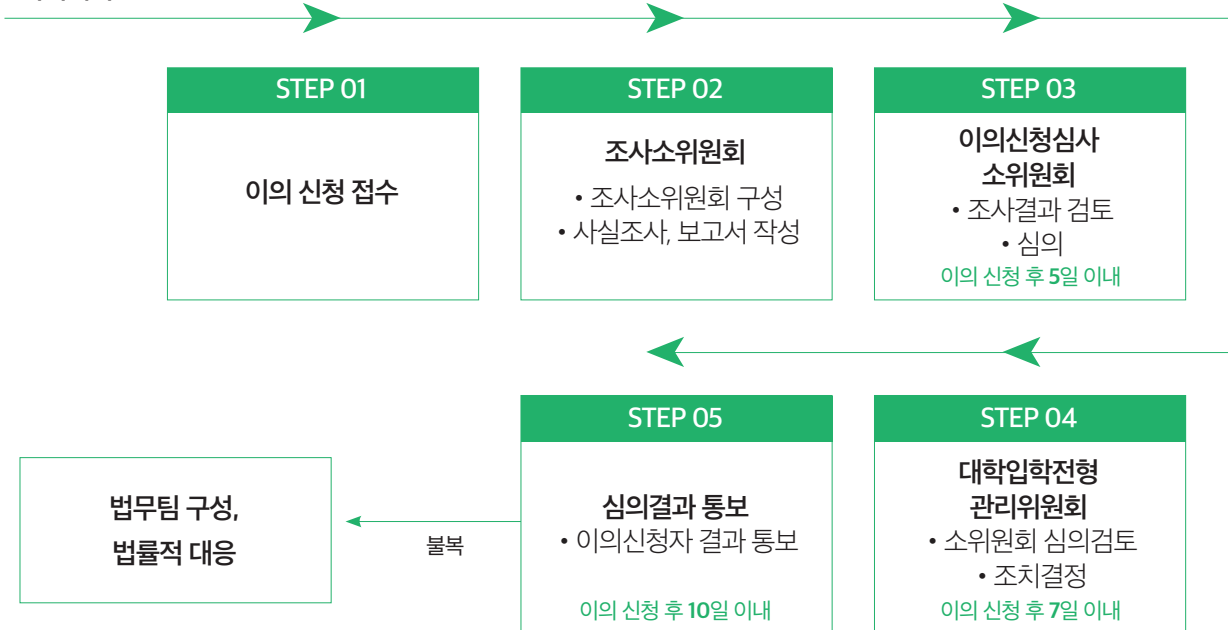
봉사활동 실적에 기록된 누적시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변화와 성장 내용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다른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총체적 검토를 하여 평가를 합니다.

Q. 독서활동상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독서량을 정량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독서활동을 통한 학생의 관심분야, 지적 호기심 등을 확인합니다. 진로와 연관된 심화된 독서나 지적 호기심 충족을 위한 폭넓은 독서 활동 등 모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평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 다른 항목과 연계하여 종합적 검토를 하여 평가를 합니다.

Q. 학생부종합전형의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제기



입학 취소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함(대구교육대학교 학칙에 명시)

6. D.new(재학생)'s story



함께한 D.new

8기 김건호 김민기 김영은 이다민 조효원(19학번)

9기 김주은 노현균 안수진 안정윤 장민호 정영은(20학번)

대입준비 이야기

○ 교과활동을 위한 노력?

주은 :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관리' 없는 학생부는 양고 없는 찌뽕! 고등학교 3년 내내 가장 중요 시 한 것은 과목별 성적 관리였어요. 수행평가는 교직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며 실시했어요. 몇몇 과목은 수행평가 이외에도 자유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최선을 다해 제출했어요. 이런 일련의 노력을 선생님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꼼꼼히 적어주셨어요. 이와 같은 습관을 들이다 보니 대학에 와서도 모든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수진 :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 공부할 때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내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공부 방법을 큰 개념들부터 익히고 문제를 풀면서 세세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어요. 아울러 과목별로 시간을 설정해 놓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 결과 내신 성적도 오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손을 들고 선생님께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졸지 않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시험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공부에 흥미가 많은 학생도 아니었어요.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 노력했고 수업 시간에 적극성을 보여 준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아요.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대학에서의 과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 비교과활동 속에서의 성장?

수진 :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은 ‘교육 동아리’ 활동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금요일에 2시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즐겁게 활동을 했어요.

1학년 때는 2학년 동아리 부장의 지도하에 수동적인 활동을 했어요. 교육 관련 영화 감상하기, 교육 관련 독서하기, 교육 관련 다큐멘터리 보기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어요.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2학년 때는 제가 부장을 맡게 되어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부원들과 함께 수업 방법에 대한 탐구활동, 수업 시연을 자체적으로 했어요. 전일제 활동 때는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지도하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대학에서는 동기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수업도 많고, 직접 수업을 구성해보는 수업도 있어요. 고등학생 때 했던 경험들이 밑거름이 되어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20학번 영은 : 고등학교 때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그 중 가장 중점을 두고 한 활동은 ‘교육 봉사’라고 생각해요. 처음 고등학생 때 교육 봉사를 그저 교대 입시를 위한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육 봉사를 매주 금요일 빠짐없이 가다 보니 아이들과 정도 많이 들고 저의 어설픈 가르침에도 아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교육관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처음 만난 학생들과 친해지는 법,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등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대학 입학 후인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고등학생 때보다 저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의 깊이 등이 성숙해 졌음을 느낍니다. 교육 봉사활동 경험이 교사의 역할, 태도 등을 배우며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교육 봉사를 해보면서 교사의 자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 학생부 관리방법?

20학번 영은 : 학생부에는 출결 사항, 수상경력, 과목별 성적, 독서 활동과 같은 본인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 특히 성적 같은 경우에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며 수상실적을 위해 학교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나 프로젝트에 적극 참가했어요.

또한 학생부에는 담임 선생님과 과목별 교과 선생님이 기록해주시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학습 발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학생을 한 학기 또는 1년간 지켜보며 적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본인의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친구들은 물론이고 모든 선생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 교무실에 들러 선생님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장래희망인 초등교사에 대한 열정을 수업 시간과 그 외의 시간에도 선생님들께 보여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열정을 선생님들께서 좋게 봐주신 덕분인지, 진로가 잘 드러나는 학생부를 완성했던 것 같아요.

수진 :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교육 관련 활동을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무작정 교육 관련 활동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육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교육 관련 도서도 읽고, 교육 봉사에도 참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생님이라는 꿈에 대한 간절함이 더 많이 생기고, 동아리 부장을 맡으며 활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을까?’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와 관련된 책도 읽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도 하고, 탐구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 시연도 해보고, 아동센터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실습도 해보았어요.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나니 학생부 관리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덕분에 학생부에는 제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 같고, 꿈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탐구하며 성장하게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대를 준비한다고 해서 교육 관련 활동만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니까요. 특히 세특 같은 경우는 꼭 교육과 연관 짓지 않아도 그 과목에서 심화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많이 했어요. 다양한 과목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교육적으로는 저만의 교육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부를 관리했던 것 같아요.

○ 슬럼프 극복 방법?

수진 :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슬럼프가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신이 잘 나오지 않아서 교대에 절대 못 갈 것 같아 많이 울기도 했어요. 포기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 끝까지 해보자는 각오를 다졌어요. 3학년 1학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신과 비교과를 마무리했어요.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아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합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공부뿐 아니라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그 때마다 유튜브로 초등교사의 브이로그를 찾아보면서 선생님이 된 저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교실을 아끼자기하고 귀엽게 꾸미는 상상도 해 보았어요. 대구교대 브이로그도 찾아보면서 저의 간절한 꿈을 꼭 이루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이런 미래에 대한 상상도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정윤 :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칠 수밖에 없는 슬럼프가 찾아와요.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 의지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으로 이를 극복했어요. 휴식 시간에는 공부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슬럼프 또한 ‘내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임을 인식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슬럼프라는 사실에 빠져 우울함과 자책감에 빠져있으면 정말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을 최대한 가볍게 가지고 ‘내가 나중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민호 : 저는 그렇게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슬럼프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때는 공부하는 것을 싫어도 했고, 성적 향상을 위해 친한 친구들끼리 경쟁해야한다는 현실이 너무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럴 때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명언들을 찾아보곤 했는데, 당시에 가장 큰 자극이 되었던 명언은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였어요.

‘공부로 힘들어하기에는 세상에 힘든 일은 너무나 많다.’, ‘어찌 보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행복한 것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어요.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세뇌시켰던 것 같아요. 공부?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어찌겠어요?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참고 견뎌야죠.

○ 교대 입학 후 고등학교 시절 아쉬움이 남는 활동? 그 이유?

주은 : 가장 아쉬운 점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교사라는 확고한 꿈이 있었기에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동아리나 체험을 위주로 하였는데 너무 이것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타 분야의 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채로운 경험을 한다면 후에 만날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의 스펙트럼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입시의 압박이 적은 1학년 때 여러 분야의 동아리나 체험학습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정윤 :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당시에는 가고 싶은 학과나 진로 희망 등에만 맞추어서 단순히 ‘스펙 쌓기’ 용으로 동아리를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흥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를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대학생이 되어 보니 교대를 가기 위해 반드시 교육봉사만 하고, 교육 분야의 책을 읽고, 교육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하는 어떤 활동이라도 나의 꿈을 키우는 데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든 꼭 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시절을 오로지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정말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도록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민호 : 독서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요. 그 당시에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은 어떻게 읽어?’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독서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는 고교 때인 것 같아요. 교대에는 독서를 취미로 즐기는 동기와 선배들이 많아요. 가끔 책 얘기를 할 때면 좀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독서활동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해요. 하지만 실천은 어렵네요. 독서활동도 함께 하면서 교직에 대한 꿈과 열정을 키웠으면 합니다.

면접이야기

○ 준비방법

주은 : 교육대학교를 희망하는 친구들과 함께 면접 스터디를 했어요. 서로의 학생부를 보면서 예상 질문도 만들어보고, 모의면접을 진행하면서 답변에 대한 피드백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같은 꿈을 꾸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도 있고, 교대입시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큰 효과가 있었어요.

면접을 처음 준비할 때는 면접질문을 예상하기 어려워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면접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배우게 된 모든 것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학교 수업 중 말하고 발표하는 활동들은 면접에서 큰 효과를 보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독서와 작문 수업에서는 면접에 관한 단원이 따로 있었을 정도로 수업과 면접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에 수업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 면접을 준비하는 데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정윤 : 누군가와 함께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같이 면접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면접 연습장면을 동영상 촬영 후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준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상황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혼자 준비해도 괜찮을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키워드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면 됩니다.

면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 잘 풀어내야 하는 점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평소 학교 수업에서 진행되는 토론이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등장하는 문제 중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활동도 면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학번 영은 : 면접 준비는 혼자도 해보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해보기도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적절하게 혼용한다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본격적으로 면접을 준비한 것은 1단계 합격한 이후였어요. 우선 학생부를 꼼꼼히 살피며 사소한 문장 하나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만들며 정리를 했어요. A4용지로 36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혼자 중얼거리며 1주일 정도 연습을 했어요. 이후에는 제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켜놓고 대답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말할 때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발음이나 논리 등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민망하더라도 영상 찍고 스스로 또는 친한 친구나 가족, 선생님에게 보여드려 피드백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매끄럽게 할 정도가 됐다고 생각이 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면접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실제 면접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임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처음보다 실력이 엄청 늘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고 자신감도 더 높아져 실제 면접에서도 떨지 않고 만족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꾸준히 준비하면 면접은 쉽게 느껴질 겁니다.

민호 : 면접은 같은 학교나 타 학교의 교대 지망생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갖고 있는 정보도 다르고, 교육에 대한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유와 비교 분석을 통해 생각을 가다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 포함 6명이 서로의 학생부를 보면서 질문을 만들고, 모의면접을 실시하고, 나름의 피드백 과정을 진행했던 스터디 그룹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면접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의 교육관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떠한 면접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면접장 분위기

수진 : 대구교대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훈훈하고 따뜻하다’였던 것 같아요. 다른 교대들은 많이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여서 더 긴장이 되고 떨렸었는데, 대구교대는 면접 보는 건물 입구에서 많은 선배들이 응원을 힘차게 해 주시고, 면접 대기 시간 때도 도우미 역할을 하는 선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긴장을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에 참가한 학생들과도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면접장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대구교대에 더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학교 동기들, 선배님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면접실 안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따뜻했던 것 같아요. 면접위원들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다정하게 면접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질문의 난이도는 사람마다, 그리고 면접위원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예상 질문들보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의 질문이 나왔고,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 조금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저의 생각을 차분하고 밝게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잘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학생부 안에서 제가 했던 활동을 토대로 기본적인 질문도 들어오고, 심화적인 질문도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점과 배웠던 점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20학번 영은 : 면접 당일 저는 오전 제일 첫 번째 조 면접이라 아침 일찍부터 나와 학교로 향했어요. 면접실이었던 인문사회관 앞에서 선배들에게 따뜻한 핫팩과 엄청난 응원을 받으며 들어갔어요. 대기실에 들어가면 안 하던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재학생 도우미 선배들이 계속 말을 걸어주면서 긴장을 많이 풀어줬어요. 대기실에서 종이를 보며 억지로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 오히려 재학생 도우미와 대화를 하면서 긴장을 푼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대구 교대 면접실, 면접대기실은 정말 ‘훈훈’ 그 자체예요. 정말!! 재학생 도우미 선배들 덕분에 긴장 풀고 면접실로 들어가 잘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긴장했을 신입생들을 돕고 싶어 홍보대사까지 지원하게 되었죠.

면접장에 들어가 인사를 한 후 긴장을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질문을 받았는데 교수님들이 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질문을 하셨어요. 면접 질문 내용의 난이도는 제가 준비했던 예상 질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꼬리 질문의 경우 약간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교수님의 의견도 받아들이면서 저의 주장을 보완해 나

가는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아마 면접 준비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며 꾸준히 연습해 본다면 답변의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면접실의 분위기도 따뜻했어요. 교수님이 항상 웃어주시고 저의 답변에 고개도 가끔 끄덕이시는 등 리액션이 좋아서 기분 좋게 면접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어요. 면접 분위기는 대구교대가 아마 최고라고 생각해요!

주은: 교육대학교 4곳 중 대구교육대학교의 면접 분위기가 가장 좋았어요. 합격 후 학교를 선택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줄 정도로요. 대구교육대학교의 면접 위원 분들은 정말 저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잘 경청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아 자신감 있게 답변할 수 있었어요. 질문 내용의 난이도는 면접 관련 사교육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학교생활을 하며 교직소양을 잘 쌓아왔다면 무난히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면접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소통도 너무 잘 되었기에 가장 인상 깊은 면접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2021학번 새내기 편지

21학번_계수아

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21학번 새내기 계수아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대구교대 입학의 기다리는 지금이 꿈만 같아요. 어릴 때부터 초등교사의 꿈을 꿴던지라, 고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까지 '교대 합격'이라는 목표 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1학년 때는 의욕이 넘쳐서 정말 교내·외 가리지 않고 모든 주제의 대회, 행사에 참여했어요. 초등교사는 전 과목을 지도해야하기에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교내 '국제관계 이해 강연대회'부터 대구시가 주관하는 <수학페스티벌> 수업시연 대회 등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며 학교생활을 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내신 성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하기도 했답니다. 목표가 명확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학년 때는 '교육'분야에 초점을 맞춰 학업과 활동을 했어요. 공동교육과정으로 '교육학'을 수강하고 인문 고전학교라는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교육철학을 배웠어요. 그 속에서 저만의 교육적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아울러 유사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직접 수업을 계획하여 학교 앞 복지관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했었어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3학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활동을 하지 못해 공부에 집중했어요. 집에서 K-Mooc을 통해 고등교육 수준의 강의를 수강하기도 했어요.

부족하지만 교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건네 봅니다.

21학번_허혜지

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21학번 새내기 허혜지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대구교육대학교 입학과 초등교사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제가 드디어 입시를 마치고 후배들에게 전하는 글을 쓰게 되어 뿌듯합니다. 내신이 교대 입시 평균에 비하면 꽤 낮은 편이기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치열한 내신 경쟁 속에서 성적의 급격한 하락으로 낙담을 했지만 대구교육대학교에 다닐만한 학생이라 생각하며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벗어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내신을 올린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3학년 때는 대구교대 수시 평균 성적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공부 방법 중 추천하는 것은 '작은 노트 공부법'입니다. 내신을 위한 시험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수이기 때문에 반복이 중요합니다. 작은 노트에 공부할 내용을 자신만의 이해를 가미하여 구조화시켜 적어놓고 버스를 탈 때, 밥 먹을 때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을 한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적' 평가라는 단어에 희망을 품고 낮은 내신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하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전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생각에 대구교대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에 늘 참가하여 사소한 정보라도 잘 기억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입학 홈페이지나 교대 입시 관련 카페를 이용하여 정보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학교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내신은 낮더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꼭 최고점을 받자'는 다짐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저만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기록되었고 이를 면접에서도 자신감 있게 설명 할 수 있었습니다. 2등급 정도의 내신이었지만 학교 선생님, 친구들, 선후배의 독려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5곳의 교대에 합격하는 행복한 순간을 주변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면 예쁜 합격증을 손에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학교에서 만나요.

농어촌 실습 이야기

-‘연습’에서 ‘실전’으로의 첫 걸음-

D.new 7기 권민선

안녕하세요. 대구교육대학교 D.new(홍보대사) 7기 권민선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렇게라도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실습은 일정기간동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다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배우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교육대학교마다 실습일정은 모두 다르지만 대학생들 모두 실습할 날만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은 같을 것 같아요. 우리 대구교육대학교는 3학년 1학기- 참관 실습(농어촌 교육 실습), 3학년 2학기- 수업 실습Ⅰ, 4학년 1학기- 수업 실습Ⅱ로 총 3번의 실습을 합니다. 참관 실습은 주로 수업 참관을 중심으로 실습을 진행하며, 수업 실습은 학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직접 수업을 해보는 활동 중심의 실습입니다. 3번의 실습 중 첫 실습인 농어촌 교육 실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농어촌 교육 실습 ‘경북 부구초등학교’

2020년도 농어촌 교육 실습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1학기 중반에 실시되었던 참관 실습이 1학기의 모든 수업을 마치고 다녀오도록 일정이 조정되었어요. 코로나19로 조심해야 할 점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지만 모든 수업을 마치고 실습이 진행된 탓에 좀 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아요. 참관실습은 많은 초등학교 중에서도 경상북도에 위치한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를 가는데 저는 안동, 봉화, 예천, 상주, 포항 등 많은 학교들 중에서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부구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변 환경

이었어요. 초등학교 바로 근처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설레는 첫 실습인 만큼 예쁜 바다를 곁에 두고 실습하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싶었습니다. 부구초등학교는 학생 수 총 297명, 15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농어촌 학교들 보다는 비교적 학급 수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부구초등학교 실습생들은 총 8명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학급에 각각 2명씩 배치되었고, 저는 1학년 학급에서 참관 실습을 하였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순수함과 엉뚱함으로 선생님들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즐겁게 해주는 매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 교육 실습생의 하루 소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8시 30분부터 수업을 마칠 때 까지 배정받은 교실에서 수업을 참관합니다. 농어촌 교육 실습에는 총 2번의 수업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각 반의 시간표를 참고하여 해보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고, 담임 선생님과 수업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여 시연을 합니다. 학교 - 지역사회 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지역 문화 탐방도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울진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와 지역 박물관을 탐방하였는데 그 지역 문화를 체험하니 아이들과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아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집으로 가고 난 이후부터 퇴근 시간인 4시 30분까지



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현직 선생님들께서 받는 연수 직접 들어보기, 다양한 교육용 스포츠 도구를 활용한 수업지도 하기,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교육 시스템이나 도구 배워보기 등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현직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통해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며 전반적인 학교 경영이나 학생 생활 지도 방법을 익혔습니다.

실습을 함께한 동기들과 초등학교 내에서는 선생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선생님'하며 부르다가 퇴근을 하면 여느 때와 다른 없는 대학생으로 돌아가 자주는 아니지만 바다 구경을 하며 먹거리를 즐기는 여유도 가졌어요.

3. 초등학생들과의 기억에 남는 일화

2주 동안 1학년 아이들과의 시간은 무척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얗게 순수하고 예쁜 아이들 덕분에 14일이라는 기간이 무척 짧게만 느껴졌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너무 많이 간직하게 된 실습이었어요. 소중한 기억들을 빠짐없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지만 지면 관계상 세 가지만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만나면 꼭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일화는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에요. 부구초등학교에 도착해서 현직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여러 가지 안내를 받고 난 후 아이들을 만나니 벌써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식 인사를 하지 못하고 열심히 밥 먹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급식실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만나게 될 아이들은 '어떤 반응일까?', '반가워해 주겠지!' 등 기대를 하며 아이들을 마주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치 매일 만났던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눈길조차 주지 않아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저희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급식으로 요구르트가 나왔는데 스스로 요구르트 뚜껑을 뜯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선생님께 뜯어달라고 쪼르르 달려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귀엽고 예뻐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지 스스로 해보라고 말씀하셨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 태연하게 요구르트 뚜껑을 뜯는 모습을 보며 '순수한 아이들 덕분에 힐링이 되는 실습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일화는 수업 참관 중 일어난 일이에요. 1학년 학급에 배정된 저는 교실의 맨 왼쪽 뒷줄에 앉아 수업 참관을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기억에 납니다. 그 아이는 통화와 간단한 연락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는데, 수업 중에도 굉장한 효과음을 내며 누군가와 열심히 연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주로 메시지를 연락수단으로 활용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앞에서 열심히 수업하시는 담임 선생님 목소리 너머로 "여보세요? 엄마 왜?"라는 힘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당일 학교 급식 메뉴를 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1학년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학년 아이들은 어디로 뛸지 모른다는 선배들의 말을 직접 실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화는 실습이 끝나고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던 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든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교실 앞에 섰습니다. 우리와의 헤어짐이 아쉬워 '아이들이 울면 어떻게 달래주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저희의 걱정과는 다르게, 헤어진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듯한 순수한 얼굴로 해맑게 인사하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저희를 당황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학년에 배정받은 실습생들은 마지막 버스에 타기 전까지 우는 아이들을 달래주었는데 반대로 너무나 밝은 모습을 하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1학년 아이들을 보며 신기하기도 했고 학년마다 다르게 풍기는 아이들의 분위기를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을 다녀오기 전에는 학년별로 다른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학년에 따라 담임 선생님의 역할과 지도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렇듯 실습은 참된 선생님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4. 실습을 다녀온 후 마음가짐의 변화

부구초등학교에서 2주 동안 실습을 다녀온 후 가장 눈에 띄게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현직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 덕분에 항상 긴장해야하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 당황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처음 1학년을 배정받았을 때 무섭기도 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희 반 담임 선생님께서도 고학년, 중학년, 저학년 아이들 모두를 지도해 보았는데 저학년 아이들과 제일 잘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기 힘들어 저학년 담임 선생님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고학년 아이들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실 것 같나요?

사실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은 담임 선생님께 많은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갑니다. 선생님의 성격이나 분위기가 그 반 아이들의 분위기와 닮아 있다는 사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접하며 배우는 것 또한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애 첫 수업을 위해 열심히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고민도 했습니다. 수업과 연계하여 자신이 뽑은 쪽지와 같은 의미의 쪽지를 뽑은 친구를 찾아오면 사탕을 주는 마무리 게임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짝을 찾아 사탕을 받아가는 친구가 있는 반면 짝을 찾지 못해 정말 슬퍼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의 첫 수업을 잘 따라와 준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던 나머지 미션을 성공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사탕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짝을 찾아오지 못했던 한 아이가 "우리 담임 선생님은 미션 실패하면 절대 안주는데, 교생 선생님은 실패해도 주셔서 너무 좋아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의 실수는 아닐까?'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영향을 받아 성장해가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받은 아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아닐까?'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평소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값진 경험을 하여 뿌듯했습니다.

5. 고등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저의 첫 실습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그 덕분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워야겠다는 저의 확실한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목표'라는 두 글자를 보면 어떤 목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대구교대 합격'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좋은 선생님 되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목표'라는 단어를 보면 '대구교대 합격'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첫 단추는 교대입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선생님이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보다 교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비교과에 집중하고 생각했던 시간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이 점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꿈을 위해서 교대입학 준비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씩 고민해보면서 자신만의 교육관을 만들어 간다면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길로 가는 방법은 많지만 정답은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해보고 고민해 본다면 분명 좋은 선생님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작은 틈을 하나 드리자면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사소한 경험 하나일지라도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분명 큰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오랜 시간 내가 걸어 가야할 길에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유쾌한 일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변할지라도 아이들의 순수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런 아이들의 순수함을 받으며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모저모 이야기

대구교육대학교의 4계절

봄	새 학기가 시작하는 봄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우선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고 총학생회와 과 학생회를 축하하는 출범식이 있어요. 출범식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과 각과의 새내기들의 멋진 춤사위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3월 중순에 학교 동아리들을 소개하는 ‘해오름제’를 합니다. 이시기에 새내기 여러분들은 가입을 원하는 동아리에 이름을 쓰시면 돼요. 각 동아리에서 준비한 이벤트들을 체험하고 교내에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 지 알 수 있는 아주 알찬 행사예요. 4학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선배들을 응원을 위해 ‘졸업 페스티벌’도 해요. 체육과는 봄에 하지만 각과마다 하는 시기는 상이하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봄은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계절 인만큼 각과별로 실시하는 신입생 환영회가 있는데 선배들과 연락처도 주고받으며 친해질 수 좋은 기회예요. 아! 과학관 앞에 벚꽃 사진 스팟이 있는데 여기서 과 단체 사진을 찍거나 과잠 사진을 많이 찍는답니다. 꽃이 피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학번_영은
여름	기말고사를 치르고 과제도 전부 제출한 뒤 종강을 한 학생들은 방학을 알차게 보내야겠죠. 여름에는 보통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피아노 연습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 없이 휴식해본 것이 얼마만인지. 여러분들도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아무런 걱정 없이 늦잠을 자고 새벽까지 게임도 하며 한껏 자유로운 생활을 보낼 수 있어요. 여행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며 다음 학기를 위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19가 실외에서 만끽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앗아갔네요. 효원
가을	가을에는 ‘축제’가 가장 으뜸인 행사입니다. 축제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관람하며 타과에 들러서 놀기도 했어요. 제가 1학년 때는 저희 과 음식들을 선배들이 많이 팔아주셔서 그 돈으로 과잠을 맞추기도 했어요. 축제 다음으로 큰 행사가 바로 ‘낙동’인데요 낙동은 대구, 진주, 부산교대의 동아리들이 모여 교류 하는 행사입니다. 각 동아리들이 약 1년간 준비한 것들을 뽐내며 동아리 연합회에서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들에 참여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낙동은 매년 주최하는 학교가 달라져요. 2년 전에는 우리 대학교에 서 주최하였고 지난해에는 아쉽게도 열리지 못했어요. 올해는 꼭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앞으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해요. 19학번_영은
겨울	겨울엔 행사가 정말 많아요. 종강하기 전과 후로 구분되는데 가장 중요한 행사는 후배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겠죠? 수시 면접과 정시 면접은 서서히 다음 학년이 될 준비를 하게끔 만들어 줘요. 새내기들을 맞이할 준비로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나중에 입학하면 네이버 카페에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겨울은 새터 기획 등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각 과의 재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보는 날을 가져보기도 하고, 평소 소원했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제주대학교에서 교류 학생으로 온 친구와 스키 수업을 들은 친구는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입학한 후 다양한 도전을 하며 유익미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어요. 효원

○ 대학수업 소개

건호 : 대학수업은 크게 전공, 교직, 교양과목들로 나뉘어 있어요. 전공과목은 초등 국어·수학·음악 교육론 등입니다. 교직과목은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등의 이론과 교육실습이 포함됩니다. 교양과목은 국제관계, 생활과학 등 인문·자연과학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교양과목의 대부분은 1학년 때 배웁니다.

19학번 영은 : 초등교사는 전 과목을 지도하므로 모든 과목의 기초 개념 위주로 1학년 때 배웠어요.

1학년은 다른 학년 보다 과제에 대한 부담이 적었고 실기 위주의 평가가 많았어요. 2학년부서는 본격적으로 교육학에 대해 배우기 시작해요. 수업 지도안 작성과 수업시연을 하며 예비 초등교사로서 필요한 능력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지도안을 작성하고 40분의 수업을 조원끼리 나누어 시연을 함으로써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3학년이 되면 실습을 통해 실제 초등학생들 앞에서 수업시연도 하고 개별 지도안도 많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3학년 되는 것이 무섭기도 하면서 한 편으로는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모든 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을 토대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실기 과제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할 줄 알아야하기 때문에 하는 실습이 주를 이룹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 흥미로운 과제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음식 조리, 영어 연극 같은 과제들도 재미있었고 무용이나 국악 등 평소에 잘 가지 않는 음악 공연도 과제를 핑계삼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동아리 소개

다민 : 현재 태권도 동아리 ‘수벽타’와 연극 동아리 ‘극예술연구회’에서 활동 중이에요.

1학년 때는 동아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면 힘들 것 같아 수벽타 하나만 들어갔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태권도 동아리를 통해 꾸준히 운동해보려고 가입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준비 운동과 품새, 겨루기를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대구 앞산을 오른 적도 있는데 늘 교내 체육관에서 활동하다가 함께 등산을 하니 사이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고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태권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즐길 예정이에요. 운동능력을 기르고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께 태권도 동아리 ‘수벽타’를 추천합니다.

2학년 초에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극예술연구회’는 짧게 ‘극연’이라고 줄여 부르곤 합니다. 극연은 기획/연출/연기/조명/무대/소품 등 다양한 역할이 어우러져 한 공연을 완성하는 매력적인 동아리예요. 연극을 무대에서 상영하는 것뿐 아니라 연극을 함께 감상하기도 해요. 저는 공연의 배우가 아니라 스태프 역할을 하고서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못을 박고 페인트칠을 한 막이 배우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즐거울 것 같았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 예술, 연극에 관심이 있다면 ‘극예술연구회’를 추천합니다.

19학번 영은: 테니스와 핸드볼 동아리, 그리고 방송부를 하고 있어요.

테니스와 핸드볼이라는 운동 동아리를 하면서 그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운동 동아리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단합심이에요. 전교대나 삼교대 주최 수상대회의 입상을 목표로 다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숨이 찰 때까지 함께 연습 하면서 동아리 부원들과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전교대나 삼교대를 통해 다른 교육대학교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해요.

방송부는 교내의 방송을 책임지는 부서인데 제작부를 맡고 있어요. 제작부는 점심시간 음악방송의 대본을 쓰는 부서예요. 하루는 점심방송을 들으신 경비기사님께서 방송부에 찾아오셔서 봄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감사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이때 방송부원으로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처럼 동아리들은 각각 나름의 매력이 있어요. 공연분과 동아리들은 공연 할 때의 설레임, 여행 동아리는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등. 동아리를 통해 사람도, 경험도 많이 얻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 동아리에 가입한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동아리를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호: 합창동아리 ‘하모니’와 동기들과 함께 요리하는 ‘요리조리’라는 문화예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하모니’에서는 학기 중에 약 1달간 주 3회 3시간씩 연습을 하여 봄, 가을에 각 1회씩 공연을 해요. 연습 기간과 연습량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수준 높은 합창을 선보일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해요. ‘요리조리’는 활동일 전에 미리 활동을 희망하는 학우를 모집해서 인원과 규모를 파악한 후 3~4인이 1개의 그룹을 형성하여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해요. 평소 친한 동기나 선·후배와 함께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 학교생활 이야기

민기: 중앙학생회인 ‘중앙집행위원회’와 학생회인 ‘집행부’ 활동 등 학생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학생회는 학우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구이지만 열정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과 친목을 쌓으며 추억을 만드는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학생회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한 대구교대 8기 홍보대사 ‘D.new’로 활동하고 있어요. D.new 활동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대구교대가 가진 장점과 참된 교사 양성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 등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대학에 입학 하신 후 한 가지라도 좋으니 스스로에게 의미 있고 소중한, 잊지 못할 활동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과거의 소중한 일과 추억을 되돌아본다면 다시 일어설 용기도 얻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자신이 행복한 일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19학번 영은 : 입학하면서 '뭐든지 해보고 후회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시도하지 못하고 '나중에 하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공모전이나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 드려요. 학기 중에 영상공모전에 출전해보았어요. 과제와 학업, 공모전 준비까지 벅찼습니다. 하지만 돌아켜보니 바쁘면서도 가장 알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모전을 통해서 자기계발도 할 수 있고 더불어 제가 잘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특히 교육대학교는 수업시연 대회가 자주 있는 편인데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미리 수업을 해보고 교사로서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 후배님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주은 : 안녕하세요.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학년이 됐어요. 새 해가 되는 시점이면 항상 고민과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걱정이 곧 하나의 추억이 될 테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힘을 내보아요.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했던 저도 가장 가고 싶었던 대구교육대학교에 합격하고 홍보대사가 되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꼭 대구교육대학교의 선후배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현균 : 입시라는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이 원하는 꿈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힘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 파이팅 하고 꼭 후배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요.

수진 : 입시를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나 자신을 응원해 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내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결국 이런 생각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믿어주면서 자신만의 장점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멋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들, 비교과를 채워가는 시간들을 단지 입시를 위한 괴롭고 힘든 과정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간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준비했었는데, 지금 돌아해보면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값진 시간들이었고, 그 경험들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생 함께 할 영양분이 된 것 같아요. 내년엔 후배로 만나서 새터, 엠티, 어린이날 행사 등등 함께 즐기고 싶어요. 예비 교대생들 모두 아자아자 파이팅♡

정윤 : 미래의 대구교육대학교 후배님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글을 읽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힘든 수험 생활 중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테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들은 수험 생활의 출발선과 대구교육대학교 합격이라는 골인 지점 중에서 골인 지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대구교육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응원합니다.

민호 : 코로나19로 현재 제한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활기찬 대구교대 분위기 속에서 고교시절 그랬던 행복한 대학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인생 전체를 두고 본다면 일순간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면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죽도록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과거의 제 자신이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대구교대에 입학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미래의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꼭 대구교대 선후배 사이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학번 영은 :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마 교대 합격증을 보면 힘들었던 마음도 다 치유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면접 대기실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건호 : 후배님들! 지금은 고등학교 공부, 학생부 관리, 학교생활까지 전부 완벽히 해내려면 힘들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성적이 많이 떨어진 2학년 때 슬럼프가 와서 한동안 의욕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씩 희망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진지하게 이야기 하다가도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주제가 바뀔 때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럼에도 친구들과의 대화는 조금씩 입시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구체화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변사람들과 나누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쉬운 해결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의지가 될 때가 있으니까요. 대학교 캠퍼스를 걷는 후배님들 스스로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며 입시를 준비하면 좀 더 희망차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때로는 막연하고 확신이 안서더라도 ‘나 아니면 누가 합격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노력하면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계속 꾸준히 노력하셔서 이 글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민기 :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수험생 시기를 겪고 있을 거예요. 수험생 때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많이 가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 마다 꼭 되새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를 믿어주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이 왔을 때나 포기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너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 꿈을 이룰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소중한 꿈을 향해 힘들어도 묵묵히 한 발자국씩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대구교육대학교에서 만날 날을 기다릴게요.

19학번 영은 :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제가 벌써 대구교육대학교에 입학 한 지 2년이 지났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일정이 변경되어 많이 혼란스럽고 답답하시죠. 충분히 이해해요. 이미 진로와 입시의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안함까지 더해질 것 같아요. 저 역시 여러분들처럼 입시에 대한

불안함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수도 없이 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고 매우 노력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대구교육대학교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의 고등학교 3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저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많이 불안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고민을 했던 순간순간 까지도 다 경험이었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순간순간 진심을 다해 고민한다면 결론적으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언컨대 여러분 앞에는 앞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길 일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노력한 것 이상으로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보고 계실 후배님들! 내년엔 대구교육대학교에서 후배로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요. 진심을 담아 응원해요. 파이팅!)

다민 : 대구교육대학교 입학은 꿈꾸는 예비 후배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교육대학교에 관심을 갖고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최선을 다 해서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시길 바라요! 늘 응원할게요!

효원 : 후배님들! 지금까지 치열하게 달려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싶은 걸 참으며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의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조용하고, 차분하게 지나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활동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교내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속출하고,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교차되며 혼란이 컸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처럼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자’ 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2024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이 상황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고, 이 글을 보고 있는 학생 분들이 입시를 치를 때에도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도 훌훌 날려 보내기도 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화이팅이에요!



7. 대구교대의 입학정보 제공 채널

• 입학정보 제공

월	주요 내용
4	2023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홈페이지) * 2022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기 공지)
5	202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전년도 입학전형 결과
6-7	고교방문 맞춤형 입학전형 안내(각 학교 및 소외지역)
여름방학	DNUE Primary 진로·진학캠프, 입학전형 안내 및 결과 공유 워크숍, 면접체험(On line / Off line) 등
9-10	2022학년도 정시모집요강
겨울방학	초등교실 Preview, DNUE 공명성 올림 클래스 등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NUE 진로진학 이메일링 소식지 제공(1-2월, 6-8월)

- 내용 : 대구교육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서 제작한 진로진학 관련 정보
- 발송방법 : 신청자의 이메일로 발송
- 소식지 신청 방법 : 아래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 D.new(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채팅 가능 시간 : 평일 18:00 ~ 21:00
- * 주말 질문은 평일에 답변하며, 수업으로 인해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해주세요.

• 대구교육대학교 홍보대사 D.new 인스타그램

- 계정 : dnue_dnnew

• D.new(홍보대사) 유튜브



대구교육대학교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대명동)
대구교육대학교 교무처 입학관리본부
TEL 053-620-1276~1280 Fax 053-620-1261

본 책자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비로 제작되었습니다.